

# ‘대상 없는 표상’의 문제

## (The Problem of Objectless Representation)

김영진 (경기대 교양학부)  
(Youngjin Kiem, Kyonggi University)

발표문 초록

1. 정신은 통상적으로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세상에 실재하는 사물을 인지한다. 이 경우, 실재하는 사물이 우리 정신에게 그 사물에 대한 표상을 촉발하고 유발한다. 인지적 표상 일반이 표상 작용과 표상 대상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상 대상이 되는 사물의 존재가 표상 성립에 있어서 수행하는 역할-특히 그 인과적 역할-은 거의 결정적이다. 이 점은 우리가 표상과 인지의 본성을 데카르트적 정신주의나 이성주의가 아닌 다윈(C. Darwin) 류의 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소유하는 정신적-신체적 기관과 그 기능은, 거칠게 말해서, 근본적으로 사물과 사실의 실재성에 대한 적응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관점을 우리 논의의 한 기본 가정으로 또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수용한다.

2. 다른 한편으로 정신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를테면 ‘페가수스’, ‘용’, ‘산타클로스’, ‘초인’, ‘블로초’, ‘플로지스톤’, ‘허수’, ‘세계 3차 대전’, ‘등근 사각형’, ‘마녀’, ‘영혼’, ‘천국’, ‘지옥’, 심지어 ‘신’ 등의 추정적 사물-을 표상한다. 그러한 추정적 사물을 편의상 ‘비현존적 대상물(non-existent entity)’이라고 부르자. 이런 종류의 표상 활동에서 표상 작용의 표적이 되는 대상은, 사실상 그것이 세상에

실재하지 않으므로, 표상 성립에 아무런 실질적인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기할만한 점은, 이른바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한 표상이 우리 실제 삶에서 생생하게 등장하며 또한 의미심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타클로스를 믿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이 같지 않듯이, 신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행동과 삶은 다르다.

이제 우리의 물음은 이것이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정신은 어떻게 표상하는가? 다시 말하여, 대상 없는 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철학자들은 종종 이 문제를 ‘지향성의 난문’이라고 부른다(Crane 2002). 여기서 필자는 그 난문에 대하여 현대 지향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주요 답변들-특히 마이농(A. Meinong) 류의 ‘대상 이론’과 스미스(D. Smith)와 서얼(J. Searle) 등의 ‘내용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한 가능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3. 그런데 ‘대상 없는 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전에 그 물음의 의미와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첫째는 이른바 ‘대상 없는 표상’에도 여러 상이한 유형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같은 표상의 유형을 다음 셋으로 나눈다: (i) 시간적으로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현재에 실재하지 않는 존재자에 대한 표상(예컨대 사망한 사람에 대한 기억). (ii) 신화, 소설, 드라마, 영화 등의 인공적 산물에서 나타나는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한 표상(예컨대 페가수스나 용에 대한 상상). (iii) 그 객관적 실재성이 의문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제 양식에서 등장하는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한 표상(산타클로스, 플로지스톤, 세계 3차 대전, 나아가 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 여기서 필자는 대상 없는 표상의 세 유형 중에서 유형 (ii)와 (iii)-특히 (iii)-에 탐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중심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두 번째 점은 ‘대상 없는 표상’을 ‘오류 표상(misrepresentation)’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전자는 후자의 한 유형일지 모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즉 전자가 상상·욕구·믿음·사유와 같은 심적 작용에 연관하는 반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오감을 통한 외적 지각에서 기인한다. 이 점에서 사념함(conceiving)과 지각함(perceiving)사이의 의미심장한 차이가 있듯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표상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잘못 표상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간극이 존재한다. 다음에서 우리는 ‘사념함(conceiving)에 관련한, 대상 없는 표상’ 문제에 관여한다.

4. 주지하듯이, 대상 없는 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물음에 관련하여 두 대표적인 답변이 있다. 그 하나는 마이논이 제시하는 ‘대상 이론(object theory)’이다(Meinong 1960). 이에 따르면, 대상 없는 표상 작용에는 어떤 특수한 종류의 대상이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 그러한 대상은 이 세상에 현존하지는(exist) 않지만 어떤

가능한 방식에서 잠존하는(subsist)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입장은, 표상의 성립이 표상 작용과 그 작용이 정향하는 표적 즉 표상 대상에서 완결된다는 원리에 충실하다. 하지만 그 이론은 표상 대상의 존재 방식을 신비화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 해결책은 위에서 언급된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는 한 난해하고 신비로운 철학적 문제를 더욱 더 난해하고 신비로운 교설(doctrine)에 의해 풀고자하는 경향을 갖는 것 같다.

5. 지향성의 난문을 해결하는 일과 관련하여 소위 ‘대상 이론’과의 대비 속에서 일단의 철학자들은 ‘내용 이론(content theory)’을 제시한다(Searle 1983, Smith 1989, Crane 2002). 이 입장은 표상 일반의 본질적 구조를 ‘표상 주체’, ‘표상 내용’, 그리고 ‘표상 대상’으로 삼분한다. 대상 없는 표상의 가능 근거에 대하여 내용 이론가들은 비록 그러한 표상 작용의 최종 표적(대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심적인 표상 내용이 여전히 존재하며 바로 그러한 심적 내용을 통하여 그와 같은 표상이 적절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언뜻 보아 이 답변은 대상 이론이 갖는 난점을 피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강한 설명력을 갖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난점이 있다. 그 난점은 이중으로 겹쳐 있다. 첫째, 그 관점에서 표상 내용은 자칫 표상 대상으로 실체화될(reify) 수 있다. 둘째, 그 입장에서 표상 내용이 표상 대상으로 실체화되지 않는 한, 대상 없는 표상은 그 종착지가 없는 표상으로-즉 문제시되는 표상이 도대체 무엇에 ‘관한’ 표상인지를 적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표상으로-드러난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하게 밝혀보자.

5.1 데이비드 스미스에 따르면, 지향 상태는 그 지향 상태의 주체와 그 지향 상태의 내용(content)과 그리고 그 지향 상태가 정향하고 있는 대상(object)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서 ‘대상’은 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에서 세계 안에 실재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내용은 어떤 대상이 경험 주체에게 제시되는(presented) 방식을 뜻한다. 이에 스미스는 지향 상태의 내용을 “우리가 소위 ‘개념(concepts)’, ‘관념(ideas)’, ‘이미지(images)’, ‘지각자료(percepts)’, ‘현상(appearances)’ 등으로 부르는 것”(D. Smith 1989, 9-10) 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향성의 난제에 대한 스미스의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비현존적 대상물들(entities)을 정신이 표상한다는 것은 지향적 경험이, 그것이 정향해 있는 대상(object)을 결여한 채, 어떤 지향적 내용만을 가지는 것이다.

일견 스미스의 해결책은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심각한 난점이 있다. 즉, 정향하기로 되어 있는 어떤 대상을 결여한 지향 상태가 여전히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문제시 되는 그 지향 상태가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에 정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스미스는 이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관점에서 지향적 내용은 실체화(reify)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향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실체화된다면, 이는 스미스 스스로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마이농적인 대상으로의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일 대상을 결여한 지향 상태가 진정한 지향 상태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정한다), 그 지향

상태는 지향성의 정의상(by definition) 어떠한 무엇인가에 관한(about)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스미스의 관점에서, 지향 내용은 지향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을 결여한 지향적 상태가 여전히 내용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 종류의 지향적 상태는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인가?

5.2 이제 우리 시대의 한 대표적인 지향성 철학자 서얼의 관점을 고찰해 보자. 놀랍게도 서얼은 지향성의 난문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서얼의 지향성 이론 일반으로부터 그 난문에 대한 한 해결책을 그릴 수 있다.

우선 서얼은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지향 상태의 내용과 대상을 날카롭게 구분한다. 그는 지향 상태의 대상을 ‘정신이 정향하고 있는 표적(target)’이라고 보며, 지향 상태의 내용을 ‘그를 통하여 정신이 어떤 특정한 표적에 정향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해한다. (지향 대상과 지향 내용에 관한 서얼과 스미스의 이해는 기본적으로 흡사하다. 그 구분은 브렌타노의 제자 트바도브스키에 의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다만 서얼은 지향 내용의 역할을 프레게에서 표현의 의미(sense)가 수행하는 역할에 더 근접시키고 있다.)

그런데 서얼은 지향 상태가 ‘부합 방향(directions of fit)’을 갖는다고 본다. 말하자면, 지향적 상태로서의 믿음은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하여 ‘정신에서 세계로의 부합 방향’을 갖는다. 반면에 욕구는 그것이 충족되기 위하여 ‘세계에서 정신으로의 부합 방향’을 갖는다. 부합 방향을 갖는 지향 상태는 표상적이고 명제적인 내용을 소유하는 바, 바로 이 지향 내용이 지향적

상태의 대상,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향적 상태의 충족 조건을 규정한다. (표현의 의미(Sinn)가 그 표현의 지시체(Bedeutung)를 결정한다는 프레게 테제를 상기하자.)

주목해야 할 점은, 서얼에 따르면, 두 종류의 상이한 충족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청으로서의 충족 조건(the conditions of satisfaction as the requirement)’과 ‘요청된 사물로서의 충족 조건(the conditions of satisfaction as the thing required)’이다(Searle 1983, 13). 충족 조건에 대한 서얼의 구분을 지향성의 난문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한 멋진 해결책을 얻는 듯 보인다. 즉 정신이 비현존적 대상을 표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문제시되는 표상과 관련한 지향 상태가 비록 ‘요청된 사물로서의 충족 조건’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요청으로서의 만족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미스의 해결책 보다 한 걸음 진보한 입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해결책은 지향 상태의 내용을 실체화시키지 않은 채 단지 ‘요청으로서의 만족조건’을 상정함으로써, 비현존적 대상물의 표상과 관련한 지향 상태의 정향성(aboutness)에 한 설명을 부여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선물을 가져다 줄 것 이라는 희망은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에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임’라는 절이 표현하고 있는 명제 내용과, 희망이라는 심리적 양태(mode)와, 그리고 세계에서 정신에로의 부합 방향으로 이루어진 지향 상태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 지향 상태는 ‘요청된 사물로서의 충족 조건’을 갖지는 않지만 ‘요청으로서의 만족조건’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 지향 상태는 요청으로서의 만족조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판명된다.

하지만 한 의문이 생긴다. 말하자면 ‘요청된 사물로서의 만족조건’을 보증하는 것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외계 사물이므로 지향 내용과 그 충족 조건 사이의 일치(agreement)를 확인(identify)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요청된 사물을 갖지 않는, 즉 한갓된 요청으로서의 충족 조건은 정확히 무엇과 같은 것일까? 비현존적 대상을 표상하는 지향적 상태가 정향해 있다고 가정되는 ‘요청으로서의 만족조건’은 문제시되는 그 대상물과 그에 결합된 추정적 속성들의 집합일 것이다. 그런 종류의 표상에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지향 내용과 그 요청으로서의 충족 조건 사이의 일치를 확인하는 일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지향 내용에 다시 의거하지 않는 한,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비현존적 대상물에 대한 ‘지향 내용’과 ‘요청으로서의 충족 조건’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서얼의 해결책 역시 지향 내용을 실체화시키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지향 상태가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인지의 문제에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서얼의 관점에서조차 지향 내용은 실체화될 수 없다. 대상 없는 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같은 표상의 본성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6. 이제 필자는 기존의 ‘대상 이론’과 ‘내용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원래 물음에 대한 한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물음은 이러하였다: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정신은 어떻게 표상하는가? 대상 없는 표상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그러한 종류의 표상은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지시하도록 의도되는 언어 표현(특히,

자연 언어 표현)을 정신이 표상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제안한다. 이 시각에서, 정신이 어떤 비현존적 대상물을 표상한다는 것은 한 언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인지 주체가 그 비현존적 대상물을 지시한다고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상 없는 표상의 경우 표상 내용과 표상 대상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그러한 한에서 내용은 대상의 표상을 위한 한갓된 매개 수단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오히려 표상의 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대상을 신비화시키지 않은 채 이론상 해롭지 않은 방식과 범위 내에서 내용을 실체화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후 필자는 이 요점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해명할 것이다.

- Meinong, A. (1960). "The theory of objects", in R. M. Chisholm (1960) (ed.) *Realism and the Background of Phenomenology*, Glencoe: Free Press.
- Moran, D. (1996). "Brentano's thesis", The Aristotelian Society, 1996.
- Smith, D., W.(1989). *The Circles of Acquaintance: Perception, Consciousness, and Empath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earle, J. (1983). *Intentional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wardowski, K. (1977). *On the Content and Object of Presentations*, English Tr. (1977) by R. Grossmann, The Hague: Martinus Nijhoff.

<참고문헌>

- Bloom, P. and Keil, F. (2001). "Thinking through language," *Mind & Language*, 16, 2001.
- Crane, T. (2001). *Elements of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vies, M. (1995). "Consciousness and the varieties of aboutness," in C. MacDonald and G. MacDonald (eds.) *Philosophy of Psychology: Debates on Psychological Explanation Volume One*,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Fodor, J. (2008). *LOT 2: The Language of Thought Revisited*, Oxford: Clarendon.
- McLaughlin, B. and Cohen, J. (eds.) (2007). *Contemporary Debates in Philosophy of Mi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